

출판에 대한 비상업적 견해

1994년과 95년 사이 1년반 동안 《도서신문》 출판칼럼란에 글을 쓴 일이 있다.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했으므로 주로 신간 리뷰를 했다.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글을 읽었다는 반응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글쓰는 사람으로서 즐거운 일이어야 했다. 그러나 전화 뒤끝에 늘 붙어 오는 하나의 질문, “그런데 그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에는 또한 늘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1988년부터 91년 사이에도 만 3년간 KBS 제1라디오와 사회교육방송에서 이 한편의 책이라는 고정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일이 있다. 이때도 주된 반응은 “그 책 어디 있습니까?”였다. 사회교육방송에서는 이 방송이 해외교포들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급기야 연변에서도 질문이 왔다. 라디오로 들은 책 목록을 가지고 서울에 부탁을 했으나 거의 다 없다는 대답이었다고 했다. 물론 내 책임은 아니었으나 지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너무 많은 좋은 책들, 그러니까 소부수밖에 발행할 수 없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책들은 간행은 되지만 거의 즉시 사라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서점 몇 군데에 2,3일 놓였다가 1주일 뒤에는 구석으로 밀려난 뒤 잠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6개월쯤 지나면 이 책을 간행한 출판사에서조차 망각의 늪으로 파묻히게 마련이다.

너무 많은 좋은 책들, 깊이 있고 무게 있는 책들은 간행은 되지만 거의 즉시 사라지고 있다. 2,3일 놓였다가 구석으로 밀려난 뒤 잠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잠깐 살고 죽은 책의 묘비명, 《출판저널》은 그 존재의 신원증명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각급 도서관 구입 보관분이 있고, 우편판매망이 통해 2,3년은 다시 구해볼 수 있는 관행이 있다. 국내 도서관도, 우편판매제도 서점 1주일일 유일한 공

《출판저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본다. “일주일씩밖에 생존한 바 없는 상당히 많은 출판물의 명세가 《출판저널》에는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이 어떤 책에 있어서는 아마도 유일한 법적 근거일 것이다.” 이 대답이 결코 즐거운 것일수는 없으나 그래도 기록으로나마 역사에 남았다는 최소한의 위안이 될 수는 있다.

《출판저널》의 의미는 또다른 표현으로도 가능하다. ‘출판에 대한 비상업적 견해’가 그중 하나이다. 이력저력 20여종이 넘는 도

서전문 잡지, 사보, 사외보들이 있다. 그러나 이 잡지들은 피할 수 없이 자사의 책들을 중심으로 PR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판매는 실패했다더라도 책의 의의가 강조되는 평가와는 무관해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론 출판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해 둘 책들에 관한 객관적 평가작업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1년에 한번씩 하는 문체부의 우수도서 선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로는 너무 비좁아 몇 권 정도밖에 확인해줄 수가 어렵다.

결국 정말 좋은 책의 공정한 기억을 위한 비상업적 견해는 《출판저널》이 200호 동안 해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

나 자신만 해도 때로 갖고 있지 않은 책 중 어떤 책을 다시 확인하려 했을 때 《출판저널》의 과일호를 일일이 들추어 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여러번 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출판사(史)적 관점에서는 수습할 수 없는 비극이다. 잠깐 살고 죽은 책의 묘비명, 그러나 존재했었다는 신원증명으로서의 《출판저널》은, 그럼으로써 이 잡지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선진국이 되려 하고 세계화를 하려 한다면 《출판저널》같은 잡지 한권만이라도 이끌어 가야 한다. 베스트셀러까지는 안되더라도 스테디셀러는 만들어내야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를 갖춘 세계국가가 될 것이다. <이중환>

출판저널

통권 제200호/1996년 10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우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항구한 평화, 이제는 이상향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수정 사회주의 민주주의 해방과
 세계 혁명 정치 계몽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에두아드 베를슈타인의 비판과 그 이념사적 전제
 이 책은 19세기 말에 형성된 수정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사적 연구이며, 주석에는 마르크스주의나 수정 사회주의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어 참고 도서로도 가치가 있다.
 보쿠스타르촌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322면/15,000원/절판

왜 자유는 관철되는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도덕으로 지배하고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법을 통하여 법을 집권적으로 관철·개변시키려는 역사이다. 따라서 인류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자연적인 경향이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혁명은 세계 혁명이다.
 마르틴 크리레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228면/12,000원/절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변론
 인권과 권력 분리와 민주주의는 민주적 헌법 국가의 핵심을 형성하는 제도의 일체이며 해방의 계몽주의적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한 계몽주의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승리를 획득할 세계적인 운동인 것이다.
 마르틴 크리레 지음/홍성방 옮김
 신국판/312면/4,500원/절판

도서 판매 100-360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 전화 (02)3609-150/팩스 393-8554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리처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Plus
 20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2-6호 2층
 TEL (02)722-1273/4
 FAX (02)738-8462
 KPO BOX 1132, SEOUL, KOREA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항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